

신안 연도교 건설·해안 도로 개량...신해양관광 시대 열린다

정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전남 사상 최대 10개 사업 반영

28일 정부가 확정 발표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에 전남권 주요 사업이 최종 반영되면서 전남도 안팎에서 지역 교통 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 관광산업 판도가 바뀔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온다.

정부 계획에 담긴 전남의 20년 숙원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신안 추포-비금 연도교 건설사업 등 주요 사업이 완료되는 2028년 이후, 빠르고 편안해진 육로를 타고 관광객이 밀려들면서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권, 신안을 비롯한 전남 서부권 관광산업 발전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다. 다만 사업 적기 추진과 목표 달성을 위해선 1조7000억원을 웃도는 관련 사업 예산 확보라는 난제를 전남도가 돌파해야 한다.

국도교통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에 포함된 전남권 도로 신설 사업은 모두 10가지다. 이 가운데 ▲여수-남해 해저터널

여수~남해 80분서 5분으로 단축

영호남 30분대 공동생활권 가능

신안 '다이아몬드 관광권' 가시화

1조 7000억 사업비 적기 확보 과제

신설(7.31km, 6824억원) ▲신안 추포-비금 신설(10.41km, 3827억원) 사업이 우선 주목된다. 두 개 사업의 사업비만 더해도 1조원을 넘어서는 데다 건설에 따른 지역 경제 파급, 교통 여건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된다.

여수-남해 해저터널의 경우 한려대교 건설계획 이후 20여 년의 노력 끝에 이뤄진 영호남 주민 최대 숙원사업으로 꼽힌다. 두 지역은 본래 지형상 좁은 바닷길이 사이에 있어 1시간 20분 이상 육로를 타

고 우회하고 있지만,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5분 내외의 직선 단거리로 연결된다. 영호남 30분대 공동생활권이 가능해진다. 기존 육로 거리는 80km였지만, 해저터널을 이용하면 8km 안으로 줄어들게 된다.

전남도는 "연말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5억원 안팎의 신규 사업비만 반영된다면 오는 2028년께 해저터널이 완공된다"며 "해저터널 개통으로 부산~목포 해양관광 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서남해안 관광벨트가 완성되면서, 영호남 지역균형개발과 관광산업 발전에 새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원은 지난 4월 내놓은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의 건설 필요성'이라는 발표문에서 "기본적으로 해저터널 건설로 30분 이내 기초생활서비스 제공, 60분 이내 문화·교육·의료 등 복합서비스 제공, 5분 이내 응급조치가 가능해져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위원은 "지역산업 기반 확대 효과, 지역 관광 확대 효과, 지역 이미지 개선 효과, 지역 고용

증대, 기반시설 정비 효과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며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은 지역발전 차이를 넘어 국가경제발전을 견인할 촉매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안 추포-비금 천사대교 개통 이후, 전남 서부권 관광산업 발전의 또 다른 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천사대교 개통으로 신안 압해도와 압태도가 연결될 데 이어 추포-비금 연도교가 계획대로 놓일 경우, 목포에서 비금까지 해상으로 120분 이상 걸렸던 통행시간은 육로를 이용해 60분 이하로 크게 단축되게 된다.

특히 전남서부권의 랜드마크인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 완성이 더욱 가까워져, 6000만 관광객 시대를 지속하기 위한 전남 관광사업개발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다이아몬드(◇) 형태로 자리한 압태-비금-도초-하의-장산-안좌-팔금-압태도를 연결하는 섬들을 '신안 다이아몬드제도'로 명명하고 이들 섬을 모두 연도교로 연결해 코로나 19 시대 내외국인 관

광객 물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9년 천사대교 개통 이후 신안 관광객은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 대표 관광 명소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게 전남도 전망이다.

남은 과제는 사업비 확보다. 정부의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을 근거 삼아 1조7859억원에 이르는 10개 사업 총사업비를 적기에 확보하는 작업이다. 전남도는 이들 사업이 조기에 첫발을 뚫 수 있도록 우선, 국회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사업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정운수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이제 막 정부 계획안에 반영돼 사업비 확보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여수-남해 해저터널 착공비 5억원을 비롯해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전남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이재명 인천의료원 방문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운데)가 28일 오전 인천시 동구 인천의료원을 방문 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소상공인 특별대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위드코로나 소상공인 특별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 드라이브...이낙연 "대장동' 조속 수사를"

민중 경선 2차 슈퍼위크 대비 올인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오는 29일부터 투표를 시작해 내달 3일 결과가 발표되는 2차 선거인단 투표(슈퍼위크)에 올인하고 있다. 국민과 일반당이 참여하는 2차 선거인단 규모는 총 50만명으로, 이들 가운데 적어도 35만명(투표율 70% 가정)이 실제 투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28일 대장동 개발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짓는 역공 기조에 한층 고삐를 당겼다. 광산도의원과 국민의힘 등 야권에 진상규명을 압박하는 공세를 이어가는 한편, 일부 민간업자의 폭리 취득 등 대장동 사업에서 공분을 자아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드라이브로 돌파에 나섰다.

이 지사 측은 이날부터 이틀에 걸쳐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해 토론회를 이어

간다. 이날 오후에는 이 지사 지지 의원 모임인 '성공포럼'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구조적 문제와 새로운 개발이익환수 방향을 논의했다.

좌장을 맡은 민형배(광주 광산구) 의원은 "1989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토건 카르텔에 휘둘러 20~25%만 환수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권환수를 의무화하고 전담 국가기관을 만들어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도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성남시 공공개발을 5년간 저지했던 게 어제의 당신들이다. 오늘에 와서나 보고 몸통이니, 이상한 소리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국민의힘이 토건세력 그 자체, 토건세력과 유착한 부정부패 세력"이라며 "검경이 신속 수사에서 실체를 밝혀주면 좋겠다"고 했다. 29일에는 이 지사 캠프 홍보본부장인 박상혁 의원 주축로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 제도화 방안을 토론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논란과 관련해 "이 지사의 이제까지의 설명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소상공인 특별대책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야권이 요구하는 '대장동 특검'을 두고는 "특검은 입법사항이다. 여야 간 협의와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반면 특수본은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라 (바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부산에서 특수본 설치를 요구했고 그 요구는 지금도 유효하다"며 "빨리 수사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돼 조속히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것 하나하나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이재명 27.8%·윤석열 17.2%·홍준표 16.3%

코리아리서치 조사...이낙연 11.7%

여야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차범위 밖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MBC는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여야 후보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 이재명 지사 27.8%,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 17.2%로 각각 조사됐다고 27일 발표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16.3%,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11.7%로 뒤를 이었다.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를 묻는 질문에는 이 지사가 42.4%를 차지해 20.7%를 얻은 윤 전 총장을 두배 이상 앞섰다. 홍 의원은 12.6%, 이 전 대표는 7.1%를 기록했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 지사

39.0%, 이 전 대표 30.0%, 추미애 전 장관 2.6%, 박용진 의원 2.5%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선 홍 의원 35.3%, 윤 전 총장 25.2%, 유승민 의원 9.9% 순이었다.

여야 후보가 1대 1로 맞붙는 양자대결의 경우 민주당 이재명 지사 44.5%, 윤석열 전 총장 36.0%로 이 지사가 오차범위 밖인 8.5%포인트 앞섰다. 이재명-홍준표 가상 대결에서는 42.8대 36.8%로, 격차가 오차범위인 6%포인트로 좁혀졌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나설 경우 이낙연 41.4%, 윤석열 33.8%로 이 전 대표가 7.6%포인트 앞섰다. 이낙연-홍준표의 양자대결은 이낙연 38.3%, 홍준표 37.8%로 조접전 양상을 보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승미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문사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사범	목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정부교육상담학 전공)	31	3	
	유아교육과	7	3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6	
	총 계	93	29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신학과는 군중서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목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원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1. 9. 10(금) ~ 14(화) · 전형일: 2021. 10. 1(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형일: 2022. 1. 10(월)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역지소로 36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1. 9. 10(금) ~ 14(화)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